

'같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남 윤 진^o, 한 영 균
(울산대 국문과)

Syntactic and Semantic Analysis of Korean Verb 'Kat-'

Nam, Yun-Jin, Han, Young-Gyu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Ulsan)

요 약

용언 '같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가운데 [동일]이나 [유사]를 나타내는 '같다' 구문은 '비교'의 논리가 적용되는 문장들로서 문장을 이루는 명사구의 의미 특성, 명사구 사이의 의미관계, 문장 유형등의 요소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이 유형의 '같다' 구문은 특정 문형의 실현이 명사구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 제약을 받으며, 또 실현되는 경우에도 [동일]이나 [유사]라는 [비교]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비유]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의미범주의 변화는, 특정조건 하에서의 '비교'가 현실논리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반면 언어논리에서는 수용될 때 나타나는 두 논리간의 괴리를 보완하는 기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동일]이나 [유사]를 나타내는 '같다'와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는 통사구조와 의미해석 논리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항상 '(-ㄴ/르) 것 같다'와 같은 구성양식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문구조로 해석되는 것이다.

I.

흔히 비교 또는 비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용언 '같다'는, 사전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를 갖는다. [3]

- 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
- ② (다른 것과 비교·비유하여) 비슷하다
- ③ (제언 뒤에 '같은'의 꼴로 쓰이어) 한 측에 끼일 만한
- ④ ('-ㄴ것', '-는 것', '-르것', '-을 것'의 뒤에 붙어)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냄
- ⑤ ('같으면'의 꼴로 쓰이어) '...라면', '...라도'의 뜻을 나타냄
- ⑥ ('같은'의 꼴로 동일한 명사 사이에 놓이어) '... 중에서도 기준이 될 만한'의 뜻을 나타냄
- ⑦ (마음, 생각 등의 명사나 시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의 뒤에 '같아서', '같아서는'의 꼴로 쓰이어) '으로는', '형편으로는'의 뜻을 나타냄
- ⑧ (속하는 말 뒤에 '같으니', '같으니라고'의 꼴로 쓰이어) 혼잣말로 남을 욕할 때 그와 다름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

'같다'가 위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우선 각 경우의 '같다'를 모두 동일한 어휘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동일한 어휘로 취급한다면 용언 '같다'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며 그 기본 의미로부터 위와 같이 다양한 의미분화가 일어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만일 다른 어휘로 취급한다면 그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같다'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들의 유형, 명사구들 사이의 의미관계, 그리고 명사구들과 서술어의 결합관계 등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핌으로써 위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위의 ③ - ⑧은 '같다'가 특수한 환경에서 특정한 활용어미를 갖는 경우에만 발현되는 것이므로 우선 ① ([동일]) ② ([유사])의 의미로 해석되는 '같다' 구문을 살펴본 뒤에 거기서 얻어진 해석 논리가 여타의 '같다' 구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논의의 편의상 잠정적으로 ①, ②의 '같다'를 '같다1', 그 외의 경우를 '같다2'로 부르기로 한다

II.

2.1. '같다1' 구문의 구성 요소

'같다1' 구문의 해석은 현실세계의 '비교'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같다1'이 지니는 [동일]이나 [유사]의 의미는 현실세계에서 두 개체간의 '비교'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개념인데, '같다1' 구문은 현실세계에서의 '비교'의 논리가 언어의 논리에 적용되는 양상을 흥미롭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같다1' 구문의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주목된다.

- (1) a. 영화가 키가 순희와 같다.
- b. 영화가 얼굴이 순희와 같다
- (2) a. 영화의 키가 순희의 키와 같다.
- b. ?영화의 얼굴이 순희의 얼굴과 같다
- (3) a. 영화와 순희가 키가 같다.
- b. 영화와 순희가 얼굴이 같다

(1)-(3)에서 우선 주목되는 사실은 용언 '같다'가 '영화가', '순희와' 이외에 '키가' 또는 '얼굴이'라는 명사구를 취한다는 점이다. 만일 위의 문장에서 이 두 명사구가 생략된다면 다음과 같이 의미가 매우 모호한 문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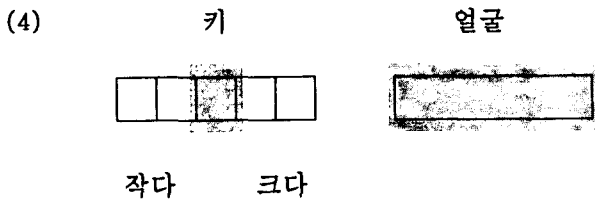
- (1)' a. 영화가 순희와 같다.
- b. 영화가 순희와 같다
- (3)' a. 영화와 순희가 같다.
- b. 영화와 순희가 같다

'같다'는 종래 '싸우다', '만나다' 등과 같이 두 개의 명사구를 필요로 하는 어휘라는 사실이 주목된 바 있는데, 여기서 다시 '같다'가 '싸우다', '만나다'와는 달리 명사구를 하나 더 요구한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의미가 [동일]이든 [유사]이든 '같다1'의 의미는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실세계의 논리는 '비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교행위의 대상이 되는 두 개체가 있어야 하며, 그 비교행위의 내용인 비교되는 성질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와 같은 현실의 논리가 언어의 논리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3)의 문장은 이러한 현실논리가 언어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중에도 살펴 보겠지만, 이러한 '비교'의 구성요소와 '같다1' 구문의 구성요소와의 대응관계는 문장의 통사구조와 더불어 '같다1' 구문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같다1' 구문의 구성

에 관여하는 명사구와 비교행위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연결지어 보기로 한다²⁾. 먼저, 비교행위의 대상이 되는 두 개체 가운데, (1)의 '영희가'와 같이 주격조사가 결합된 명사구가 지시하는 개체를 비교주체, '순희와'처럼 공동격조사 '-와/과'가 결합된 명사구가 지시하는 개체를 비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키가'와 같은 명사구는 비교행위의 내용이 되는 성질, 즉 비교성질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의 특성 및 의미관계를 살펴 보도록 한다.

2.1.1. 비교성질의 유형

비교성질은, 비교 행위가 비교성질이 지시하는 의미역의 어느 한 점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a의 '키'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그 정도성을 단계화할 수 있는 비교성질은 비교가 '키'의 의미영역 내의 어느 한 점에 촛점을 맞추어 시행된다. 반면, b의 '얼굴'처럼 비교성질이 추상적이거나 의미역을 부분들로 나누기 어려워서 그 정도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교가 '얼굴'의 의미영역내의 한 점이 아니라, 의미영역 전체에 대해 행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성질의 의미유형의 차이는 '같다' 구문의 의미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 1) 이와 같은 개념의 설정은 중세국어의 ' 다' 구문을 다룬 [6]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 2) 그런데, 비교성질은 예문 (1) - (3)이나 "이 소가 어리석기가 무학과 같다"의 경우 우처럼 명사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한은 한글을 쓴다는 점이 우리와 같다"에서와 같이 명사절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문장의 변형관계에 따라 용언의 서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달이 쟁반과 같이 둥글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언어논리와 현실논리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비교성질'을 나타내는 요소라 하면 명사구나 명사절의 형태를 갖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한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의 두 문장은 문장구조는 동일하지만, '같다'의 의미가 a는 [동일], b는 [유사]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이들 문장의 비교 성질인 '키'와 '얼굴'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비교 성질을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 (5) a. 영화가 몸매가 순희와 같다
- b. 영화가 몸매가 순희와 같이 날씬하다
- c. 영화가 몸매가 순희와 같이 34-24-34이다.

'몸매'가 정도성을 갖거나 수치화할 수 없는 의미역을 가진 [체형]의 뜻으로 쓰이면 (5a)가 [유사]의 의미로 해석되지만((5b)), 수치화 가능한 의미역을 가진 [체격]의 뜻으로 쓰이면 [동일]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5c)).

이와 같은 비교성질의 유형화는 '같다' 구문의 의미 분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비교성질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중심으로, 명사를 하위분류하는 의미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1.2. 비교주체와 비교대상

현실 세계의 논리에 따르면, 어떤 두 개체간에 비교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 두 개체간에 최소한의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동질성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교성질에 대한 속성상의 동질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개체의 높이를 비교하려면, 비교의 주체와 비교의 대상은 높이라는 비교성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높이를 가진 '나무'와 높이를 가질 수 없는 '운동장'에 대하여 '높이'가 같고 같지 않고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세계에서는, 비록 의미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교가 가능하다.

- (6) a. 영화가 키가 하늘과 같다.
- b. 영화가 얼굴이 꽃과 같다.

(6a)의 '하늘'은 키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현실세계에서는 영화와 비교할 수 없

는 것이지만, (6a)는 '같다'가 비록 (1a)와 같은 [동일]의 의미를 갖지는 않더라도 성립가능한 문장이다. (6b)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때, (6a, b)의 '같다'는 (1a, b)에서와 달리 a, b가 모두 [비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두 개체의 비교가 언어의 논리에서는 가능해짐에 따라 그 괴리를 보상하는 기제로 [비교]([동일], [유사]) → [비유]로의 의미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동질성의 문제는 (6)과 같이 비교성질에 대해 동질적이냐 하는 측면 이외에, 이들이 한정성, 혹은 특정성에서 동질적이냐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³⁾. 예를 들어 '포유류에 속하며 반점이 있고 목이 긴 동물의 종'인 기린은 비록 그것이 '키'를 가진다는 점에서 '영희'와 동질적이지만, '영희'가 인간의 무리 중 한 개체라는 점과 '기린'이 불특정 다수인 어느 동물종이라는 점에서는 이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이 두 개체간의 비교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7), (8)의 예와 같이 언어논리에서는 이러한 비교가 성립한다.

- (7) a. 영희가 키가 기린과 같다.
 b. 영희가 키가 저 기린과 같다.
 (8) a. 영희가 얼굴이 배우와 같다.
 b. 영희가 얼굴이 저 배우와 같다.
 (9) a. *학생이 키가 영희와 같다.
 b. 그 학생이 키가 영희와 같다.

위의 a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한정성이나 특정성의 측면에서 이질적이다. 이들은 모두 --(6)에서 문장의 의미가 [동일]이나 [유사]에서 [비유]로 바뀌었듯이-- (7a), (8a)는 모두 [비유]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교 대상인 '기린'이나 '배우'가 '저'에 의해 특정성, 혹은 한정성을 부여받게 되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7b), (8b)는 비교 성질의 유형에 따라 각각 [동일], [유사]의 의미를 갖게 된다. 한편, 비교대상과 비교주체의 한정성 혹은 특정성이 동질적이냐

3) 국어는 [한정성] 혹은 [특정성]이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8]) '같다1' 구문의 해석에서는 비교적 변별적임이 주목된다.

아니나 하는 문제는 '같다1' 구문의 의미해석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9)에서와 같이, 문장의 성립여부에도 관여하는 요소인 것이다.

2.2. '같다1' 구문의 문장 유형과 통사적 특성

2.2.1. 문장 유형

'같다1' 구문이 보이는 문장 유형은 2.1에서 설명한 명사구들의 조합과 각 명사구들이 조사를 취하는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⁴⁾.

(NPs=비교주체, NPo=비교대상, NPa=비교성질)

- | | | |
|---------|------------------------|---------------------------|
| (10) a. | NPs가 NPa가 NPo와 같다 |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와 생김새가 같습니다) |
| b. | NPs가 NPa가 NPo같다 | (물방개가 등글넓직한 모양이 바가지 같구나) |
| (11) a. | NPs의 NPa가 NPo의 NPa와 같다 | (지우개의 무게가 클립 열 개의 무게와 같다) |
| b. | *NPs의 NPa가 NPo의 NPa같다 | (지우개의 무게가 클립 열 개의 무게같다) |
| (12) a. | NPs의 NPa가 NPo와 같다 | (네 생각이 나와 같다니...) |
| b. | *NPs의 NPa가 NPo같다 | (*네 생각이 나같다니...) |
| (13) a. | NPs가 NPo와 같다 | (순희가 천사와 같다) |
| b. | NPs가 NPo같다 | (경수가 너무나 아기 같아서 걱정입니다) |
| (14) a. | NPs와 NPo가 NPa가 같다 | (순희와 영희가 종교가 같다) |
| b. | NPs의 NPa와 NPo의 NPa가 같다 | (토끼의 생각과 호랑이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
| c. | *NPs의 NPa와 NPo가 같다 | (*토끼의 생각과 호랑이가 같았습니다) |
| d. | NPs와 NPo의 NPa가 같다 | (토끼와 호랑이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

(10) - (12)와 (14)는 비교성질이 표시된다는 점에서 (13)과 구별되고, (10) - (13)은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각각 별개의 명사구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명사구로 기능하는 (14)와 구별된다. 또한 (10) - (13)의 a, b는 각각 비교대상을 표시하는

4) 여기서의 용어 '같다'가 파생접사 '-이'와 결합하거나,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게 되는 유형은 제외하였다. 이들은 부사화, 관형화 등의 통사적 절차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같다'구문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명사구가 조사 '와/과'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구별된다. 그런데 (11)과 (12)에서는 b형이 불가능하다. 비교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조사 '-과/와'를 갖는지 여부는 김완진(1970)에서 '같다'가 용언으로 기능하는가 접사로 기능하는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던 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같다1'의 의미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본 논의에서는 '같다1'의 문장유형을 a, b의 구별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2.2.2. 통사적 특징

종래 문점속의 '와'와 구점속의 '와'를 구별하는 논의들에서는 '와'가 구점속을 하는 예로 '뺨다', '같다'등을 서술어로 갖는 구문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논의의 성과를 중시한 나머지 '뺨다', '같다', '만나다'등을 서술어로 갖는 문장에서 '와'가 동일하게 구점속의 기능을 한다고 하여 이들 용언의 통사적 특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의 근거를, 동사분류를 염두에 둔 기존의 논의에 기대어 확인해보도록 한다

홍재성(1987)에서는 '뺨다', '만나다'등의 동사를 자동사적 대칭동사로 정의하고 동반구문, 상호구문등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통사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거기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대칭동사 구문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칭동사 구문은 ① NP_1 이 NP_2 와 VP다 ② NP_1 과 NP_2 가 VP다 ③ $NP_{1,2}$ 가 VP다($NP_{1,2}$ =복수성)과 같은 문장유형을 보인다.

둘째, ①②는 동의성을 지닌다.

셋째, ①②에서 NP_1 과 NP_2 는 서로 맞바꾸어 쓰일 수 있다.

넷째, 부사 '함께'와 '서로' 가운데 '함께'와의 공기는 제약되며, '서로'를 수의적으로 허용한다.

대칭구문의 이러한 특성은 '같다1' 구문과도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칭구문이나 '같다1' 구문 모두 '함께'와의 공기는 제약되며 '서로'와의 공기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또, 2.2.1에서 본 '같다'의 문장유형도 약간의 수

정을 거치면 - '같다1' 구문의 비교성질을 나타내는 명사구 NP_a를 VP를 이루는 요소, 즉 '같다'의 자매항으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면- 대칭구문의 문장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①, ②간의 동의성, NP₁과 NP₂가 서로 맞바꾸어 쓰일 수 있다는 문체에 있어서도 '같다1' 구문이 대칭동사 구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첫째, '같다1' 구문의 VP에 NP_a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같다1' 구문을 대칭동사 구문으로 분류한다 할 때, 대칭동사인 것은 '같다'가 아니라, '같다1' 구문의 VP구성(즉, 'NP_a가 같다')가 된다. 이는 대칭동사 구문을 이루는 다른 대칭동사들과 형태론적으로 이질성을 보이게 된다.

둘째, '같다1' 구문에서 'NP_a가'는 '같다'와 분리가 비교적 자유로운데, 만일 NP_a가 용언 '같다'의 자매항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분리성을 설명할 수 없다

셋째, 대칭동사구문의 'NP₂와'의 '와'는 생략될 수 없음에 반하여 '같다1' 구문의 '와'는 상대적으로 생략이 자유롭다.

결국 '같다1' 구문은 대칭동사 구문과는 다른 통사적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3. '같다' 구문의 의미 해석

2.3.1. 의미 해석에 관여하는 요소들

2.1과 2.2를 토대로 '같다1' 구문의 의미해석에 관여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같다1' 구문의 의미는 이들 요소들의 조합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5) 비교주체와 비교 대상의 동질성 여부

1 : 비교주체와 비교 대상이 동질적인 경우(비교성질,특정성)

2 : 비교주체와 비교 대상이 이질적인 경우(비교성질,특정성)

(16) 비교성질의 유형

A : 비교성질이 지시하는 의미역(意味域)이 단계화할 수 있거나 어느 한 점에 국한되

는 경우 (키, 순서, 결과, 사실...)

B : 비교성질이 지시하는 의미역(意味域)이 추상적이어서 단계화할 수 없거나 어느 한 점에 고정시키기 어려운 경우 (얼굴, 경험, 건강, 착함...)

(17) 문장의 유형

가 : NPs가 (NPa가) NPo와 같다

나 : NPs가 (NPa가) NPo같다

2.3.2. 의미 해석의 실제

- ① 1+A+가 ; [동일] 영화가 키가 순희와 같다. 영화가 키가 그 장대와 같다.
- ② 1+B+가 ; [유사]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와 생김새가 같습니다
- ③ 1+A+나 ; * *영화가 키가 순희같다.
- ④ 1+B+나 ; * *북한 어린이들이 생김새가 우리 같습니다
- ⑤ 2+A+가 ; [동일][비유] 영화가 키가 장대와 같다.
- ⑥ 2+B+가 ; [유사][비유] 무학이 어리석기가 소와 같다
- ⑦ 2+A+나 ; [비유] 영화가 키가 장대같다.
- ⑧ 2+B+나 ; [비유] 아기가 얼굴이 쟁반같다
- ⑨ 1 + 가 ; [동일] 이일이 내가 하고 싶던 일과 같다 *영수가 그 아기와 같다
- ⑩ 1 + 나 ; [추측?] 이일이 내가 하고 싶던 일같다 영수가 그 아기같다
- ㉠ 2 + 가 ; [비유] 순희가 천사와 같다 영수가 아기와 같다
- ㉡ 2 + 나 ; [비유] (경주는) 도시가 박물관 같다 영수가 아기같다

이상에서 '같다1' 구문의 의미는 (15)-(16)의 요소들의 조합상에 따라 [동일], [유사], [비유]로 나뉘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있는 점은 (15)-1의 조건이 주어지면 (17나)와 같은 문형의 형성이 제약된다는 사실과(③, ④), ③, ④와 같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⑩의 경우도 문장이 실현되기는 하나, ① - ⑨ 및 ㉠, ㉡과는 다른 의미해석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같다'가 (17나)로 실현되면 이들은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비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⑩에 대해서는 후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같다1' 구문의 기본의미가 무엇인지, '같다'의 사전에서의 어휘항목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2.1.2.에서 이미 [비유]라는 의미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두

개체의 비교가 언어의 논리에서는 가능해짐에 따라 그 궤리를 보상하는 기제로 [비교]([동일],[유사]) ⇨ [비유]로의 의미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비유]라는 의미가 '같다1' 구문의 기본의미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또한, (17나)가 (17가)에 비하여 제약을 많이 받는 문형이며 (㉓㉔), 그렇던 (17나)가 (15), (16)과 같은 조건들이 주어짐으로써 ㉗, ㉘, ㉙ 등의 경우와 같이 실현될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 의미는 [동일]이나 [유사]가 아니라 [비유]임을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같다1' 구문의 기본의미는 [동일] 또는 [유사]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기본 문형은 (17가)이고, 거기에서 (17나)의 문형과 (15), (16)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비유]라는 부차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17가,나)와 같은 문장유형에 따른 의미해석의 차이는 사전에서 [동일]이나 [유사] 이외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된 사항들이 대부분 'NP와 같-'이 아닌 'NP같-'의 구성을 지닌다는 사실이나, 김완진(1970)에서 'NP같-' 구성의 '같다'를 접미사 '-답-'과 같은 성격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사전에서 한 어휘항목으로 처리하는 '같다'에 대하여 'NP와 같-' 구성의 '같다'와 'NP같-' 구성의 '같다'를 달리 다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㉕, ㉖, ㉚와 같은 예들이 있으며, 실제의 언어생활에서 [비유]와 [비교]는 상당히 가까운 의미역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같다1' 구문이 [비교]로 해석되는 원리와 [비유]로 해석되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사전의 정의에서 '같다'의 부수적인 의미로 다루어진 것들 각각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고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4. '같다2' 구문의 특징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같다1' 구문이, 문장에 나타나는 명사구 간의 의미관계, 비교속성에 해당하는 명사구의 의미특성, 그리고 문장의 통사적 구성유형 등 세가지 요소의 조합에 따라 [동일], [유사], [비유] 등의 의미를 지니게 됨을 살펴 보았다. 또, 이들 각 의미들 가운데 [비유]는 그 실현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문장유형인 'NP가 (NP가) NP같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같다'를 모두 동일한 어휘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에서 '같다2'로 처리한 예는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이 '같다2' 가운데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한 '같다'를 중심으로 '같다1' 구문과의 관계를 통사구조에서의 동일성, 의미 해석 원리의 동일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4.1. '(-ㄴ/ㄹ) 것'과 '같다'와 '(-ㄴ/ㄹ) 것 같다'

만일 '같다2'를 '같다1'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같다2' 구문에서도 '같다1' 구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비교 주체', '비교 대상', '비교 성질' 등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설정됨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하여 [동일], [유사]가 아닌 [추측], [불확실한 단정]으로 해석되는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비교 주체', '비교 대상', '비교 성질'에 해당하는 명사구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 '같다2' 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8) a. (계곡에 발을 담그니) 나는 온몸이 시원한 것 같았다
- b. (너희들을 만나면) 나는 할 말이 무척 많을 것 같다
- c. 영호는 지각을 할 것 같았다
- d. 영화를 거기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 e. 식구들 얼굴이 처음 보는 것 같았다

(18)의 문장들은 '같다'가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의 의미를 갖는 것들로, 이들이 '같다1'과 같은 구조라 본다면, '것'의 지배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 각각 '나/나/영호/영희를 거기 보내는 것/식구들 얼굴'이 '비교주체'에, '온몸/할 말'이 '비교성질'에, '시원한 것/무척 많을 것/지각을 할 것/잘못된 것/처음 보는 것'이 '비교대상'에 해당하거나 ㉡ '나/나/영호'가 '비교주체'에, '온몸이 시원한 것/할 말이 무척 많을 것'이 '비교대상'에 해당하거나 ㉢ '비교주체'는 어떤 '상황'이나 '사정'으로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각각 '나는 온몸이 시원한 것/ 나는 할 말이 무척 많을 것/영호는 지각을 할 것/영희를 거기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식구들 얼

굴이 처음 보는 것'등이 '비교대상'에 해당한다⁵⁾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2.3.2에 적용시켜 보면, ㉔의 a, b는 ㉔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c는 ㉔에 해당되어 [비유]의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㉔나 ㉔로 분석할 경우에도 a, b, c가 모두 ㉔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유]의 의미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의미는 [비유]가 아닌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으로서, 이 두 의미간의 차이는 [비교]([동일]이나 [유사])와 [비유]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같다1' 구문이 [비유]로 해석되는 경우는 문형((19나))의 특수성 이외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동일성을 들 수 있었는데(㉔, ㉔와 ㉔, ㉔의 차이) '같다2'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사구 간의 관계에 의한 의미의 분화요인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ㄴ/ㄹ)것 같다' 구성의 존재 여부가 의미 분화의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2.3.1.에서 유일하게 [추측]의 의미를 갖는 ㉔의 경우에 대한 설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㉔, ㉔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의 구성요소들 간에 (15)-1의 조건이 주어지면 (17나)의 문장유형은 나타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은 조건을 갖는 ㉔에서 (17나)의 문장유형이 실현되며 그 의미가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것이 '(-ㄴ/ㄹ) 것 같다'와 같은 성격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사실, ㉔에 해당하는 예들은 모두 'NP가 NP인 것 같다'로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는 것들이다.((20)-(21)의 a, b의 의미와 (22)에서 a, b의 의미를 비교해 보라)

- (20) a. 이일이 내가 하고 싶던 일같다
 b. 이일이 내가 하고 싶던 일인 것 같다
- (21) a. 영희가 그 천사같다
 b. 영수가 그 천사인(였던) 것 같다
- (22) a. 영희가 천사같다
 b. 영희가 천사인 것 같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같다1'과 '같다2'의 의미차이는 '같다

5) [10]에서는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구문을 'subjectless sentence'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국어의 'topic prominent'한 성격을 드러내 주는 현상으로 보았는데, 거기에서의 '같다'구문에 대한 분석이 바로 이 ㉔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1'의 의미분화처럼 각 문장 안의 명사구들과 통사구조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ㄴ/ㄹ)것 같다' 구성의 유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는 '같다1'이 [동일]이나 [유사]로 의미가 분화하는 것, [동일]이나 [유사]가 [비유]로 변화하는 것이 같은 변수로 설명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같다1'과 '같다2'는 각각이 허용하는 문장의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2.3.1에서 알 수 있듯이 (17가)와 (17나)는 (15)-1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의미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대응이 가능한데,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 구문은 그에 해당하는 (17가)문형, 즉 '(-ㄴ/ㄹ)것과 같다' 구성을 갖는 문장과의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용언 어휘 '같다'의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의 의미는 (17가)유형의 문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23) a. 영화가 키가 장대와 같다
 - a'. 영화가 키가 장대같다
 - b. 무학이 어리석기가 소와 같다
 - b'. 무학이 어리석기가 소같다
 - c.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같다
 - c'.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같다
 - d. 순희가 천사와 같다
 - d'. 순희가 천사같다
- (24) a. 계곡에 발을 담그니 온 몸이 시원한 것 같았다.
 - a'. *계곡에 발을 담그니 온 몸이 시원한 것과 같았다.
 - b. 내 생각에는 수경이가 괜찮을 것 같다.
 - b'. *내 생각에는 수경이가 괜찮을 것과 같다.

이상으로 '같다'가 [비교]나 [비유]로 해석되는 것과 [추측], [불확실한 단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같은 논리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아울러 '같다2'의 문형은 (17나)의 형태만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같다1' 구문과 '같다2' 구문이 통사적으로 동일한 구조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같다1'과 '같다2'가 동일한 어휘라면 이들이 구성하는 문장이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것'과 결합하는 요소 '-ㄴ/ㄹ'이 관형사형 어미이며, '것'에

의해 지배되는 문장은('것'의 지배범위가 어떻든) 관형화에 의한 명사구 내포문이고, 따라서 '같다' 구문 전체가 복문 구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구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훈(1991)에서는 부사성 형식명사와 형식용언 '하-'가 결합한 구성이 나타나는 구문이 단문인가 혹은 내포절을 포함하는 복문인가를 확인하는 통사기제로 최현숙(1988)에서 제시된 '동절 조건'과 '모문(母文)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검증방법은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 구문의 단문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도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절조건'이란, 부정 양화사 '아무도'와 그것의 작용역(作用域) 표지인 '않-'은 동절성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모문조건'이란, '아무도'가 오른 쪽으로 도치될 때에는 그 작용역 표지가 모문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같다' 구문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5) a. 아무도 그를 데려올 것 같지 않았다
- b. 아무도 그를 데려오지 않을 것 같았다
- (26) a. 그를 데려올 것 같지 않았다, 아무도
- b. 그를 데려오지 않을 것 같았다, 아무도

(25), (26)이 가능함을 통해, 우리는 '같다2' 구문이 내포문 명사 '것'에 의해 연결되는 명사화 내포문을 가진 복문이 아니라, 단문임을 알 수 있다. 복문구조임이 명백한 '같다1' 구문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같다2'가 '같다1'과 같은 어휘라면, 2.2.2.에서 '같다' 구문의 특성으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 구문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사 '서로'와의 공기가능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27) a.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 원리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지.
- b. 영희가 순희와 생각이 서로 같다
- (28) a. 나는 온몸이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 a'. *나는 온몸이 서로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 a". *서로 나는 온몸이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 b. 식구들 얼굴이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b'. *식구들 얼굴이 서로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b". *서로 식구들 얼굴이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27)과 (28)의 대비에서 드러나듯이 [동일]이나 [유사]를 나타내는 '같다' 구문에서는 서로의 쓰임이 비교적 자연스럽지만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 구문에서는 '서로'의 쓰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 구문은 '(-ㄴ/ㄹ)것 같다'가 없어도 온전한 문장이 될 뿐 아니라, 문장의 명제 의미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같다1' 구문(즉 '(-ㄴ/ㄹ)것과 같다'의 구성을 갖는 구문)은, '(-ㄴ/ㄹ)것과 같다'가 없으면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29) a. 발을 계곡에 담그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b. 발을 계곡에 담그니 온몸이 얼어붙었다.

(30) a. 선생님께서는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방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셨다.

b. *선생님께서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과 방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같다2' 구문은 (17나)의 문장유형만을 가지며, (17가)로(부터)의 변형이 불가능 하고, 그 의미해석 기제도 '같다1'과는 다르다. 이 구문의 의미해석을 결정짓는 것은 '(-ㄴ/ㄹ)것 같다' 구성의 등장 여부이다. 또한 이 '같다2' 구문은 통사적으로도 '같다1'과는 다른 것으로서, 부사와의 공기제약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복문구조가 아닌, 단문구조를 보인다. 이를 근거로, '같다2'가 '같다1'과 동일한 어휘로 다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4.2. '같다2' 구문의 유형

앞에서 우리는 '같다1'과 '같다2'는 의미해석의 원리나 통사구조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따라서 이들은 별개의 어휘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같다2'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도 '같다1'과 같은 것 일 수 없다. '같다2' 구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추측], [불확실한 단정]의 주제, [추측], [불확실한 단정]의 내용, [추측], [불확실한 단정]의 표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같다2' 구문을 유형화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9)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의 주체가 명시되는 경우

- a. 소라는 경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 b. 나는 형을 걱정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 c. 제 생각에는 수경이가 특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40)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 a. 어머니는 무릎 아프신 것보다 집안 살림 걱정이 더 크신 것 같았습니다
- b. 그래, 그 정도면 내가 회사일을 보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
- c. 그리고 나의 돼지 저금통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 d. 어느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 e. 영수가 그 아기같다
- f. 그 목소리가 엄마목소리 같지 않았다

III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용언 '같다'는 [동일]이나 [유사]등 '비교'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의 의미등 '비교'와 거리가 먼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 ② [동일]이나 [유사]를 나타내는 '같다' 구문의 구성요소는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성질을 나타내는 각각의 명사구와 용언 '같다'이다.
- ③ [동일]이나 [유사]를 나타내는 '같다'가 취할 수 있는 문장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NP가 (NP가) NP와 같다'와 'NP가 (NP가) NP같다'가 그것이다.
- ④ [동일]과 [유사]의 의미차이는 '같다' 구문에 나타나는 각 명사구들의 의미특성 및 각 명사구 간의 의미유형, 그리고 '같다'동사구문의 통사구조들의 조합관계에서 비롯한다.
- ⑤ 'NP가 (NP가) NP같다'유형은 NP들의 의미관계에 따라 실현이 제약을 받으며 실현되는 경우에도 [동일]이나 [유사]의 [비교]의 범주가 아닌 [비유]의 의미를

지는데, 이러한 의미범주의 변화는 현실논리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비교]가 언어논리에서는 수용됨으로써 생기는 두 논리간의 괴리를 보완하는 기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 ⑥ [동일]이나 [유사]를 나타내는 '같다' 구문은 대칭동사구문과도 다른 통사적 특징을 지닌다.
- ⑦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는 항상 'NP가 (NP가) NP같다'의 문형을 지니며, '(-ㄴ/ㄹ)것 같다' 구성을 갖는다는 표면적 특성 이외에 의미해석 원리와 통사구조에서 [동일]이나 [유사]를 나타내는 '같다'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 ⑧ [추측] 혹은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같다' 구문은 [추측], [불확실한 단정]의 주체, [추측], [불확실한 단정]의 내용, [추측], [불확실한 단정]의 표지 등을 구성요소로 가진다.

참 고 문 헌

- [1]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1985.
- [2] 김기혁,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3] 김민수, 고영근, 임홍빈, 이승재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4] 김완진, 「문접속의 '와'와 구접속의 '와」, 『어학연구』(서울대)6-2, 1970.
- [5] 김완진, 「사이부동 단상」, 『국어국문학』 49·50합집, pp67-76, 1970.
- [6] 김정아, 「' 다' 구문의 통사·의미적 특성」, 『진단학보』 62, 1986.
- [7] 임동훈,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서울대 국문과, 1991.
- [8] 전영철, 「한국어의 (비)한정성」, 『언어학 논집』 1, 언어정보연구원, 1992.
- [9] 홍재성,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1987.
- [10] Bak, Sung-Yun, 「*Kes kath-ta* construction and subjectlessness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3,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1983.
- [11] Choe, Hyon-Sook, 「'Restructuring'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4-1, SNU, 1988